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3

사도행전에서의 성령—

부활 생명의 본질적인 영과 승천 능력의 경륜적인 영,  
성령 안의 침례,  
그 영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일

성경: 눅 24:49, 요 20:22, 행 1:5, 8, 2:4, 33, 4:8, 6:3, 13:52, 고전 12:13

- I. 성경은 성령의 일에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. 그것은 생명을 위한 내적 방면인 본질적인 영과, 능력과 권위를 위한 외적 방면인 경륜적인 영이다—요 14:17, 20:22, 눅 24:49, 행 1:5, 8.
- A. ‘본질적인’이라는 말은 생활, 존재, 생활을 위한 생명을 가리키고, ‘경륜적인’이라는 말은 일이나 기능이나 능력을 가리킨다.
- B.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자신도 성령의 이 두 방면을 체험하셨다.
1.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와 생활을 위해 본질적으로 성령에게서 태어나셨으며, 그분의 사역과 움직임을 위해 경륜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받으셨다—눅 1:35, 마 1:18, 20, 3:16, 눅 4:18.
  2. 본질적인 영은 그분 안에 계셨고, 경륜적인 영은 그분 위에 계셨다—마 1:18, 20, 눅 4:18.
- C. 원칙적으로 주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영의 두 방면은 동일하다.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 영의 두 방면을 모두 체험해야 한다—눅 24:49, 요 14:17, 20:22.
1. 내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성령을 마셔야 하고, 외적으로 우리는 능력과 권위를 위해 성령을 입어야 한다—고전 12:13, 눅 24:49, 행 1:5, 8.
  2. 내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성령의 숨을 우리 안으로 들이쉬는 것이 필요하고, 외적으로 우리는 능력을 위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위에 불어오는 것이 필요하다—요 20:22, 행 2:4.
    - a. 내적인 방면은 우리 속에 생명으로 계신 성령이다—롬 8:2, 11.
    - b. 외적인 방면은 우리 위에 능력으로 계신 성령이다—행 1:8.
    - c.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내적으로 생명의 영이 필요하고 외적으로는 능력의 영이 필요하다. 우리는 반드시 내적으로 생명이신 그 영으로 채워져야 하고, 외적으로 능력이신 성령을 입어야 한다—엡 5:18, 눅 24:49.

## 사도행전

### 메시지 3(계속)

3. 우리의 영적인 존재와 생활을 위해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영을 체험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고, 우리의 영적인 일과 기능을 위해 능력이신 그 영을 체험하는 것은 경륜적인 것이다—롬 8:11, 눅 24:49, 행 1:5, 8.
    - a. 부활하신 날 주님은 제자들 안으로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다.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다—요 20:22.
    - b. 오순절날 주님은 제자들 위에 능력의 영을 부으셨다. 이것은 경륜적인 것이다—행 2:1-4.
  4. 생명의 영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을 숨으로 들이마셔야 하고, 능력의 영에 대해서는 엘리야의 겹옷으로 예표된 것처럼 그분을 제복으로 입어야 한다—요 20:22, 눅 24:49.
    - a. 전자는 생수처럼 우리가 마셔야 하고, 후자는 침례의 물처럼 우리가 그 안으로 잠겨야 한다—요 7:37-39, 행 1:5.
    - b. 생명의 영께서 본질적으로 내주하시고 능력의 영께서 경륜적으로 쏟아 부어지신 것은 우리의 체험을 위한 한 영의 두 방면이다—고전 12:13, 찬송가 226장.
- II. 성령 안의 침례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복합된 영이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머리이신 분께서 그분의 몸에 쏟아 부으신 것이다—눅 24:49, 행 1:5, 8, 2:1-4, 10:44-47, 11:15-17, 고전 12:13.**
- A. 성령 안의 침례를 통해 믿는 이들은 머리이신 그분께 연결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—고전 12:13.
  - B. 성령 안의 침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잠기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제복으로 입는 것이다—눅 24:49.
  - C. 성령 안의 침례는 두 부분으로 성취되었다.
    1. 모든 유대인 믿는 이들은 오순절날에 성령 안에 침례 받았다—행 2:1-4.
    2. 모든 이방인 믿는 이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안에 침례 받았다—행 10:44-47, 11:15-17.
    3. 이 두 부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진정한 믿는 이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주적으로 침례받았다—고전 12:13.

## 결정 연구 개요

### 메시지 3(계속)

- D.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영의 쏟아 부어짐은 역사적으로 다섯 사례가 있지만, 그 사례 중 오직 두 사례만이 성령 안의 침례라고 불린다.
1. 이 두 사례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의 유대인 부분과 이방인 부분을 성령 안에서 단번에 영원히 침례 주셨다.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성령 안의 침례를 그분의 몸에게 완전히 성취하셨다—행 1:5, 11:15-17.
  2. 다른 사례들에서는 머리이신 분께서 몸에게 이미 성취하신 성령 안의 침례가 몸과의 동일화를 통해 몸의 새로운 지체들에게 전달되었다. 이 세 가지 사례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받은 성령 안의 한 침례를 체험하는 것이다—행 8:15-17, 9:17, 19:1-7.
- E. 성령 안의 침례는 유일하게 하나이고 단번에 영원히 몸에게 성취되었다. 성령 안의 침례를 체험하는 것은 수없이 많고, 합당한 이해와 인식을 가진 몸의 지체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다—행 4:8, 13:9.
1.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주님이시고 교회에게 만물의 머리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—눅 24:50-51, 행 1:9-11, 2:32-33, 엡 1:19-23.
  2. 몸이 성령 안에서 침례 받은 것은 성취된 사실이고, 이 사실은 지금 몸에 존재하며,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. 이 사실은 유연인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증이다—눅 22:20, 히 8:8, 13.
  3. 우리는 몸에 대해 올바르게, 몸 안에 서고, 그 유언을 믿으며, 믿음으로 성령 안의 침례를 취해야 한다—고전 12:13, 히 11:1, 6.

### III.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써 우리는 그 영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일을 체험해야 한다— 엡 5:18, 행 2:4, 4:8, 6:3, 13:9, 52.

- A. 내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되는 것은 생명이신 본질적인 영을 체험하는 것이다—엡 5:18, 행 6:3, 13:52.
- B. 외적으로 그 영으로 충일되는 것은 능력과 권위를 위해 그 영 안의 침례를 체험하는 것이다—행 1:5, 8, 2:4, 4:8, 13:9.
- C. 우리가 안팎으로 그 영으로 채워질 때, 우리는 우리를 채우시고 점유하시고 덮으시는 삼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다.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곳, 모든 일에 함께 계신다—고전 12:13.